벤투 감독

플랜B 없는 벤투호 월드컵, 괜찮을까?

동아시안컵 일본에 0-3 완패…앞으로 4개월 철저히 준비해야

벤투호가 핵심 자원 없이 나선 한일전에서 또 한 번 참패하며 플랜B가 없는 약점을 제대로 노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불과 4개월만 남겨둔 시점이어서 우려는 더 커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끝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했다.

지난해 3월 평가전에 이은 2경기 연속 0-3 패배다.

결과보다 경기 내용이 더 처참하다. 90분 내내 유효슈팅을 단 1개만 기록할 정도로 완벽하게 일본에 밀렸다.

일본의 정확하고 간결한 패스워크에 한국 수비진은 농락당하다시피 했다. 한국의 어떤 공격수도 일본 수비수를 한 명이라도 시원하게 제치지 못했다.

전반전 막판부터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확연한 실력의 격차를 목도한 선수들에게 무턱대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

한국 축구가 기본적인 선수 기량에서부터 일본에 밀리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지 않고 일부 유럽파 핵심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축구를 고집한 벤투호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투호는 '수비의 핵'인 김민재(나폴리), '중원의 엔진' 황인범, 그리고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보르도) 등 유럽파 공격수들이 빠지면 경기력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일본전은 이런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기라는 것이다.

전술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고, 선발 명단에 큰 변화 없이 뽑는 선수만 뽑던 벤투 감독의 선택이 '자충수'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자신의 축구 스타일에 딱 맞는 선수만 고집하다 보니 현재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많이 뽑게 되고, 결국 압박, 공수 간격 조절 등에 실패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핵심 자원들의 유무에 따라 경기력의 진폭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면, 감독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뛰어난 개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집단적 구조로써 대응해야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벤투 감독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벌어져 버린 '숙적' 일본과 실력의 격차 문제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 축구 전체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당장 문제는 월드컵이다.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주전과 비주전 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중대한 문제를 노출해버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9월 A매치 2경기를 치르고 나면 바로 월드컵이다.

벤투호로서는 유럽파 주전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제 와서 여론에 사령탑이 흔들리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한축구협회가 나서서 벤투 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지금 와서 벤투 감독을 경질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벤투 감독이 최대한 힘을 가지고 월드컵까지 밀고 나갈 동력이 있어야 한다. 축구협회가 방패막이로 나서는 것 말고는 수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FC, 대전 꺾고 안방 연승 노린다

30일 광주서 K리그2 30라운드
승점 11점 앞서 1위 질주 '속도'

'홈 승률 82%'의 광주FC가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안방에서 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과 K리그2 2022 3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 조기 우승을 위한 연승을 달리겠다는 각오다.

휴식기를 보냈던 광주는 지난 27일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아론와 허율의 득점을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3경기 만에 기록된 승리이자 5경기 연속 무패행진.

광주는 무실점 승리로 승점 3점을 보태면서 1위 질주에 속도를 더했다.

부산전 승리로 광주는 올 시즌 16승 7무 3패(승점 55)를 기록하면서 두 경기를 덜 치른 2위 대전(12승 8무 4패·승점 44)을 승점 11점 차로 따돌렸다.

이번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온다면 광주는 대전의 추격 의지를 꺾고 우승 결승선을 향해 달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경기는 '축구가 아닌 전쟁'이자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승점 6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승리를 위해 광주는 팀워크로 대전에 맞선다.

광주는 앞선 부산전에서 상대의 밀집수비를 패스로 풀어내며 아론의 왼발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하승운, 헤이스, 엄지성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수비에서도 광주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장 안영규의 부재에도 김재봉-박한빈-아론이 쓰리백을 구성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이준도 주전 골키퍼 김경민의 공백을 잘 채우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공·수 밸런스에 경고누적으로 결장했던 미드필더 정호연과 김종우까지 출격 준비를 마치면서 광주는 탄탄한 스쿼드를 앞세워 대전전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전력은 좋지만 대전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대전은 마사, 조유민, 이창근, 김승섭 등 실력이 출중한 기존 선수에 윌리안, 주세종, 카이저 등을 새로 영입하면서 중원과 공격진의 파괴력을 더했다.

또 최근 연승을 달린 대전은 12일간 휴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3일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르는 광주에 비해 전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

상대전적에서도 대전이 10승 7무 8패로 앞서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고, 2라운드 대전전 2-0 승리를 바탕으로 홈 10연승을 내달리기도 했다.

올 시즌 광주는 홈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82.1%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방에서 강한 광주가 대전을 꺾고 조기 우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상혁, 8월 10일 모나코서 바심과 재대결

우상혁

한국 육상에 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선물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과 재대결한다.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공식홈페이지는 27일(한국시간)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 바심이 출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의 '초청'을 받은 우상혁도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출전 의사를 밝혔다.

우상혁과 바심이 맞붙을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는 현지시간으로 8월 10일에 열린다.

둘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놓고 경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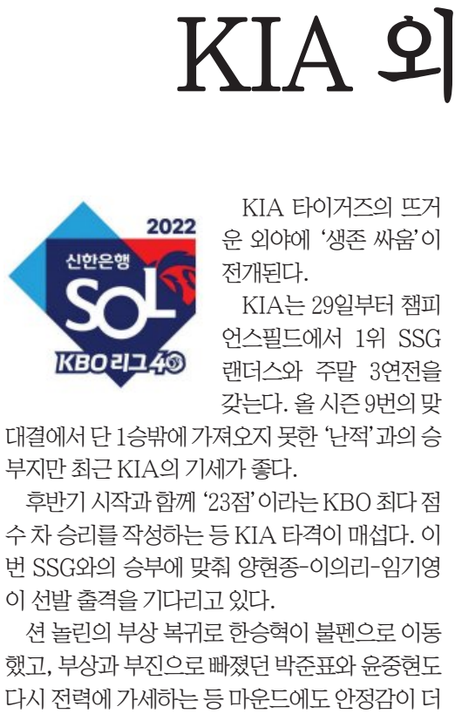
바심이 2m37을 넘어 대회 3연패에 성공했고, 우상혁은 2m35로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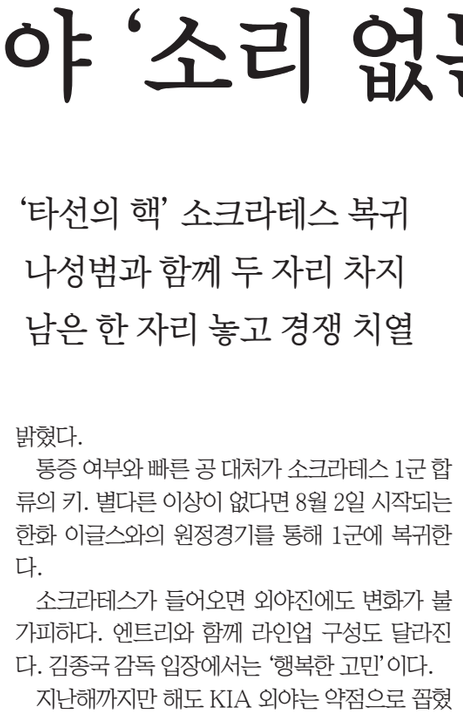
우상혁은 지난 21일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하며 "이젠 바심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며 "바심에게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다음에 다시 보자'고 했다. 내가 꾸준히 국제대회에 출전하며 경력을 쌓이면 내가 원하는 동작도 만들어지고, 바심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심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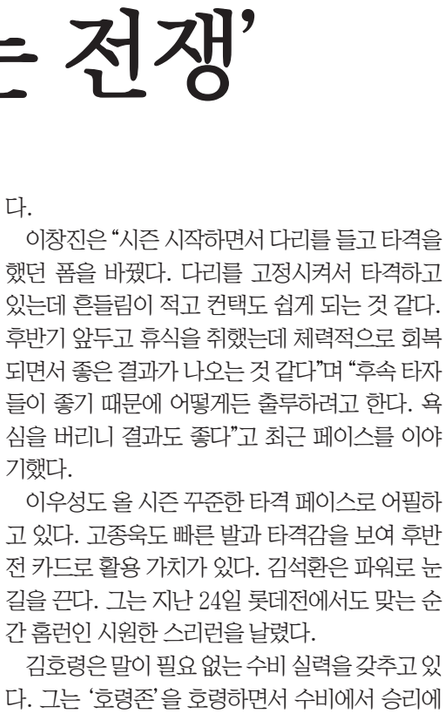
바심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역 최고 점퍼다.

하지만 우상혁도 바심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

그는 올해 5월 14일 '바심의 홈'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바심을 꺾었다. /연합뉴스


이창진


김호령


이우성

KIA 외야 '소리 없는 전쟁'

'타선의 핵' 소크라테스 복귀
나성범과 함께 두 자리 차지
남은 한 자리 놓고 경쟁 치열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외야에 '생존 싸움'이 전개된다.

KIA는 29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1위 SSG 랜더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올 시즌 9번의 맞대결에서 단 1승밖에 가져오지 못한 '난적'과의 승부지만 최근 KIA의 기세가 좋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23점'이라는 KBO 최다 점수 차 승리를 작성하는 등 KIA 타격이 매섭다. 이번 SSG와의 승부에 맞춰 양현종-이의리-임기영이 선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션 놀린의 부상 복귀로 한승혁이 불펜으로 이동했고, 부상과 부진으로 빠졌던 박준표와 윤중현도 다시 전력에 가세하는 등 마운드에도 안정감이 더해졌다.

눈길 끄는 SSG와의 승부, 외야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전개된다.

KIA 타선의 핵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김광현의 공에 코뼈 골절 부상을 당했던 소크라테스는 지난 20일 재활군에서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26일 1군 선수단에서 훈련을 소화한 소크라테스는 29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타석에서도 실력 점검을 받는다.

일단 현재 움직임은 좋다. 소크라테스는 수비훈련 시간에도 통증 없이 외야를 뛰면서 복귀 전망을 밝혔다.

통증 여부와 빠른 공 대처가 소크라테스 1군 합류의 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8월 2일 시작되는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1군에 복귀한다.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 외야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엔트리와 함께 라인업 구성도 달라진다. 김종국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KIA 외야는 약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FA 대어 나성범을 영입한 KIA는 소크라테스로 외야 두 자리를 채웠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전력 상승효과가 더해졌다.

김종국 감독은 "서바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에 안 나가는 선수들도 긴장하겠지만 우리 팀은 전쟁 상황이다"며 "이창진, 김호령, 이우성, 고종욱, 김석환 모두 다 개성이 있고 잘해주고 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외야 구상을 이야기했다.

현재는 공격에서는 이창진이 가장 앞서 있다.

이창진은 28일 경기 전까지 7월 12경기에서 타율 0.455(44타수 20안타) 7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창진은 "시즌 시작하면서 다리를 들고 타격을 했던 폼을 바꿨다. 다리를 고정시켜서 타격하고 있는데 흔들림이 적고 컨택도 쉽게 되는 것 같다. 후반기 앞두고 휴식을 취했는데 체력적으로 회복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후속 타자들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루하려고 한다. 욕심을 버리니 결과도 좋다"고 최근 페이스를 이야기했다.

이우성도 올 시즌 꾸준한 타격 페이스로 어필하고 있다. 고종욱도 빠른 발과 타격감을 보여 후반전 카드로 활용 가치가 있다. 김석환은 파워로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24일 롯데전에서도 맞는 순간 홈런인 시원한 스리런을 날렸다.

김호령은 말이 필요 없는 수비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호령존'을 호령하면서 수비에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치열해진 외야는 공격은 물론 수비 동반 상승까지 유도하고 있다.

전반기 막판 중견수 김호령과 좌익수 이우성의 환상적인 수비로 한화전 스윕을 만들었던 KIA, 우익수 나성범도 지난 26일 놀라운 수비를 보여줬다. 나성범은 이명기의 2루타 성 타구를 뛰어올라 낚아채면서 스타트를 끊은 주자까지 투 아웃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나였으면 못 잡았을 타구였다"고 김호령도 인정한 특급 수비였다.

공·수에서 뜨거운 KIA 외야가 이번 주말 생존 싸움으로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